

#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12월이다. 오늘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삼천리강토를 굽어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길에 바치신 철세워인의 고결한 한생이 가슴뜨겁게 안겨 온다.

## 겨레에게 안겨주신 민족대단결사상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늘처럼 맑고 푸르던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산천초목도 비분비합이던 그때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해빛처럼 따스히 안겨오신분이 계시었다.

그이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일찌기 조국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심층에는 오직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짙게 차있었으니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와 다음해 4월 18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립장과 방략을 천명하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

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 주시었으며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식화, 민족대단결5대방침 제시!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반드시 조국통일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칙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구현해오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지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으로서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은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녀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울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하기에 온 겨레가 어버이장군님을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구정으로 우러러따르며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었다.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며 주제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띠고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애국애족의 대량단과 통일 의지로 온 겨레를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대단합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민족적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점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 분열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평양상봉의 나날 몸소 평양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어 남북일행을 따듯히 맞아주시었으며 수십리연도우에 환영의 꽃물결을 펼쳐주시어 통일을 바라는 공화국인민의 절절한 녀념을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시었다. 불과 55시간이라는 짧은 평양상봉의 나날에 분열 55년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사변적성과가 이룩된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제 87(1998)년 10월 30일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평양에 온 정주영명예회장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북남이 서로 협력을 잘해 나갈데 대하여,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자는 사람들과 그 누구와도 언제나 손잡고 나갈것이라는 온정 깊은 믿음의 말씀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 온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듯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민족의 향취어린 송이버섯을 받아안고 감격에 설레이던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도 있었고 한생을 반공과 반북에 앞장섰던 남조선의 언론사 사장들도 있었으며 친히 공원을 보아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남조선의 너가수도 있었다.

어찌 이뿐이랴. 력사적인 6.15시대와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은 퍼들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했다.

참으로 그 나날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통일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는것을 온 겨레가 피부로 절감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하기에 민족최대의 상실의 아픔이 강산에 차넘치던 나날 남녘의 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공화국에 보내온 조문과 조전들에서 《두차례의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징표를 만들어 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력사적발걸음은 각계 민족들에게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리징표를 수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력사가 기억할것입니다.》라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오늘도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그리움의 10년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어느덧 10년, 강산도 변한다. 10년이 흘렀지만 절세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더 커만 가는 공화국인민들이다.

행복의 새 보금자리를 받아안을 때, 현대적인 새 문화식당에 들어설 때, 자제의 힘과 기술로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보다 뜨거운 애국애민의 열과 정으로 마련해주시는 행복의 씨앗들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그 나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뚫고헤치시었던가.

차분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을만큼 벅스깊이 얼어드

는 강추위속에서도, 그늘속에 앉았다고만 해도 힘겨운 삼복철에도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하다면 무엇이 그리로 하여금 이렇듯 자신의 한생을 애국의 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게 할 수 있었는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에게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국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이 통일된 조국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복한 생활을 하게끔 해줄 수 있게 하기 전에야는 순간도 휴식을 할 수 없다. 나는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지금까지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을것이다. ... 바로 이것이었다. 어떻게 하나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철

의 의지를 지니시었기에, 통일된 강국을 겨레에게 안겨 주는것을 자신의 사명감으로 받아안으셨기에 장군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광그리바쳐가시며 행복의 씨앗들이 이 땅에 문으셨다.

이 행복의 씨앗들이 지난 10년간 알찬 열매들로 주렁졌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광그리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로고와 헌신에 의해 이 땅에 황홀한 전변의 모습들이 펼쳐졌다.

창건거리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이 땅 곳곳에 수없이 일터선 인민의 보금자리들, 통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에 넘치는 인민의 행복담친 웃음소리, 조국강산에 차넘친 사회주의바다향기와 괴담향기,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달리 는 새형의 무개도전차와 지

하전동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기것에 대한 긍지를 새겨주는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정말이지 손으로 꼽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랑찬 성과들이 조국땅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민의 재부들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곤 하신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함축된 그이의 말씀을 눈물속에 외우며 공화국인민들은 창조하고 증산하였다.

진정 지난 10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온 나날이었고 이 행복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절절하게 끓어넘친 나날이었다.

하기에 외국의 한 인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관생일을 맞으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 김정일동지 그이를 세상사람 누구나 숭배하네 뜻깊은 이날 시인들은 그리움의 노래를 엮어가네 그이에 대한 그리움 그이에 대한 사랑은 조선인민의 넋이고 숨결이여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이어라 ...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뜻과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불라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민족대단결에 대한 철칙의 의지

주제 78(1989)년 4월 2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민족대단결사상을 밝히시고 민족

적단결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시었으며 해방후에는 조국건설업에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하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시었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그리시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의지라고 하시며 통일이 애국이고 분열이 매국인듯이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도 주시었다.

### 해돋이를 보시면서도

로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라고 하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온 민족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단합하면 얼마든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주제 91(2002)년 조국땅에 불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날이었다.

이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제일본조선인예술단 배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다가 총련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살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은 전통적인 민족, 위대한 민족이라고,

5천년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새 세기에 더욱 빛내고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망탕 끌어들이며 민족적인것을 흐리게 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을 지키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대중이 평양에 와서 환영하는 녀성들이 다 조선옷을 입는것을 보고 아주 훌륭하다고 감탄한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민족분위주의, 민족리기주의로 나가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민족주의를 주장한다고,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께서는 민족주의자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곧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하시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 민족성을 살려나가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남조선에서도 민족성이 점점 희석되고 개량되고있는것이 문제라고 하시며 저기 가슴아파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얼마후 자리를 고쳐앉으시며 우리 노래에서 녀성을 생활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노래에서는 녀성을 꽃이 아니라 한다고, 우리 나라는 인구조도 많지 않는데도 노래동안 서로 갈라져 왔다 보니 이런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하시면서 지금 남조선에서 《세계화》요, 《국제화》

요 하면서 민족성을 희어버리고있는데 그에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시었다.

조국의 일군들과 총련일군들은 승업한 격정에 힘차여 있었다.

사실 민족성을 살려나가는것은 총련의 현정세로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더욱이 제일동포 3, 4세가 동포사회의 주역으

로 등장하였고 《세계화》, 《국제화》를 떠드는 일본 땅에서 국제결혼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가 는 동포자녀들도 있어 민족성문제 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이 다시금 참가자들의 가슴에 울려들었다.

총련에서는 동포들에 대한 민족성교양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민족성교양은 동포교양사업의 출발점이며 동포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의 중요한

본사기자